

애벌레의 소망

- '집으로 가는 길' 을 읽고 -

썬뿔여자중학교 1학년
이현경

우리는 전쟁이라는 껍질을 벗고 자유의 나라로 가고 싶은 애벌레이다. 애벌레는 껍질을 뚫고 나가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힘을 다한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는 끔찍한 전쟁의 껍질을 벗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힘을 다해야 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잔인한 껍질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 제물로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전쟁, 그것은 그만큼 무섭고 잔인한 존재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았던 것보다 어찌면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실재인지 모른다. 전쟁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 일이지만, 전쟁이 싸고 있는 껍질이 무엇인지, 전쟁의 껍질 속에 갇혀있는 애벌레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소년병은 자신의 꿈과 순수함을 전쟁이라는 껍질 속에 묻고 자유를 잃어버렸다. 래퍼가 되고 싶은 순수한 소년 이스마엘은 전쟁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소년병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물 한잔을 마시는 것처럼 쉬웠다고 했다. 12살의 한 소년이 전쟁이라는 껍질에 갇혀 마약에 중독되고, 총을 들고 사람들을 겨누어 죽이는 일로 마비되어 버렸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 어린 소년이 잔인한 동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롭던 시에라리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나를 소름끼치게 했다. 이스마엘은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랩 음악을 들으며 춤을 배우고 가사를 외우며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전쟁은 한 때 친구였던 아이들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며 싸우게 만들었다. 반군은 물론 정부군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나쳐 가야하는 비정한 마음과 반군의 횡포에 보복하려는 정부군은 반군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머리를 베고, 마을을 불태웠으며 심지어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강간하도록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들이 시끄럽게 운다고 반 토막을 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아기를 끄집어내어 죽이기도 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마을을 황폐화 시키면서 비

정상적인 전쟁에 미쳐버리는 것일까?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악마의 얼굴이다. 차지하고 싶어 빼앗고, 복종시키기 위해 살인해야만 하는 흉측한 애벌레가 자라는 두 겹고 딱딱한 껍질이다. 껍데기 속 애벌레는 욕심과 반감, 폭력, 미움, 살인, 비정함, 냉혹함, 마비된 양심을 먹으며 자란다. 애벌레는 전쟁이라는 환상에 갇혀서 자유를 잃었다.

그러나 애벌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과 관심, 사랑이다. 사랑만이 애벌레를 전쟁의 껍질 속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게 한다. 전쟁의 껍질 속에서 마약과 살인에 중독된 이스마엘이 흉측한 애벌레의 껍질을 벗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니세프의 도움과 사랑, 특히 담담간 호사인 에스더의 진심어린 배려와 따스한 손길 덕분이었다. 처음 이스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구해졌을 때, 그들은 전쟁의 금단현상으로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혔다. 자신들을 참혹한 전쟁에서 빠져 나오게 해준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유니세프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해주었고, 그 아이들을 전쟁터로 돌려보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에스더는 이스마엘을 위해 많은 희생을 바쳤다. 처음 이스마엘이 병원에 와서 창문을 깨고, 병원에서 나가려고 반항을 할 때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스마엘이 좋아하는 랩 음악을 구해다 들려주면서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아주었다. 이 세상에 유니세프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일인지 모른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전쟁이란 껍질 속에 갇혀 살던 소년병들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희망이다. 이 세상에 유니세프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다면, 전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전쟁과 같은 모든 흉측한 애벌레가 계속 번져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자신의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평화로운 들판을 날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꺼내어 세상 밖으로 날아가도록 풀어주어야 한다.